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1호 【루게 제24979호】 주제 104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9일 평양시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분구, 서성  
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2호구선거장에 나가시여  
도, 시,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 일흔돐,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  
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인민  
의 진정한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  
거가 진행되는 선거장은 명절  
일색으로 단장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건국업적  
을 길이 빛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제  
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  
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  
으로 내세워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향유자로 되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의원 후보자들을 만나시여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고 공화국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불타는 충정과 애  
국의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해온 그  
들의 공로를 평가해주시면서 앞으  
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  
과 본분을 다해나가고 고무격려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거장에서 나오시자 경축의  
축바다를 펼치던 선거자들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더쳐들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선거에 참가한 크나큰  
영광을 지닌 선거자들은 존엄  
높고 강위력한 공화국의 공민된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의  
혁명주권을 굳건히 다지며 이 땅  
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  
주의강성국가를 기어 일떠세우

하여주시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감사의 정이 한껏  
어려있었다.

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위원장으로부러 선거표들을 받으

서성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

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맡겨진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리재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분구

역전대대 운전수 허명금동무와

에게 투표하시였다.

본사정치지도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선거자의 99.97% 참가

【평양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전체 인민이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기 위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19일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선거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년로, 병 등으로 선거장에 나올수 없는 선거자들은 이동투표함에 투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번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우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 비상한 의의를 안고 선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구성위원회들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결과를 확정하고있다.

###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도, 시,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

【평양 7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9일 각지 선거장들에 나가 선거자들과 함께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평양시 제117호선거구 제6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선우옥과 선교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리은경에게, 최봉해동지는 평양시 제169호선거구

제6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원장 리현광과 대성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나노기술연구소 소장 조성철에게, 최태부동지는 평양시 제209호선거구 제1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국가근로부존연구소 실장 박민열과 은정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소장 류성은에게, 양형섭동지는 평양시

제217호선거구 제63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작업반장 지철향과 사동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분조장 맹옥화에게, 강석주동지는 평양시 제34호선거구 제3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풍라인민유원지관리소 지배인 김성혁과 중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옥류관 직장장 김성일에게 투표하였다.

선거구 제32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장수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성봉과 삼석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장수원협동농장 농장원 김춘길에게, 최영림동지는 평양시 제59호선거구 제97호분구에서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326전선공장 기사장 김성운과 평천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326전선공장 직장장 김상희에게 투표하였다.

3 면으로 계속

### 《조국해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진행된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다가오고있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0성상 백두의 눈보라만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으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전환적구면을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와 신심에 넘쳐있다.

민족통일대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의 자주통일대행진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양과 판문점에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변함모임, 자주통일결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게 된다. 대회에는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과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참가한다. 우리는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것을 희망하는 각계층의 남북동포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민족통일대회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 나가려는 전체 조선민족의 드높은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게 될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셨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셨다.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리재일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기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 혁명사적물 보존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발전력사 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자그마한 철도 공장에 불과하던 기업소가 굴지의 차량생산 기지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혈관인 철도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1945년 11월에 이 공장을 창립해 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나이이자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나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영웅적로동계급으로 역세게 자라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박차고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기기관차, 객차를 비롯한 차량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데 크게



벌차는 집무실이었고 집이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좋은 철도에 편히 모시었다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히 되뇌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하루 빨리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마음쓰시며 낮이나 밤이나 철차에 오르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심정으로 철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고, 자신께서 이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뻗어있는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중요한 정책적문제들로

이바지해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줌으로써 그들이 지난 70년간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당정책관철에서 선봉대, 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966년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로동계급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는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기업소의 문화회관을 돌아보시면서 회관운영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특히 당이 제시한 5대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객차직장, 과학기술보급실, 1가공직장, 전선공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기업소앞에 나서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기업소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철도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기관차와 객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세대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최단기간안에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객차의 모양은 나라의 풍치와도 관련되므로 보기 좋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는데 기업소에서 려행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객차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객차의장품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객차들의 도장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면서도 사람들이 로선별, 용도별에 따르는 려차들을 쉽게 알아볼수 있게 다양하게 하며 그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영웅적로동계급의 혁명적분배와 현대

과학기술이 결합되면 점령 못할 요소가 없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에서는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생활력을 더 높이 발휘하기 위한 사업,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생산구역, 생활구역, 교양구역을 명백히 구분하여 잘 꾸리며 특히 생산현장을 완전히 때벗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돌아보니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갈마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어귀고 당적,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밀고나가며 첫삽을 박는 각오를 안고 달려 붙어 하루빨리 우리 나라 철도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변모시키자고 강조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철도차량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혼을 빛나게 관철하리라는 크나큰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히 공장에 찾아오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철도현대화를 위한 벽찬 투쟁에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떨쳐갈 충정의 결의에 찬탄되어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일심단결의 위력, 공화국정권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

## 하늘땅에 넘치는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뜻깊은 선거의 날이 흘러 갔다. 조국해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둘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의 명도 밑에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정권의 불패성과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인민의 심장 끝없는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이다.》

뜻깊은 선거의 날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적적성과 함께 맞이할 한 마음으로 가슴 뛰이며 우리 인민은 얼마나 뜨거운 헌신의 팡방을 울며 기쁨이 넘쳐왔는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 따라 평평한 미래에 신심과 용기를 더 높여 주신 원수님의 위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하늘땅에 차넘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생활개혁을 통하여 공화국정권의 귀중함을 신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의 참된 삶도 행복도 꽃피어날 수 있는것을 배무로 절감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오랜 탄부님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와 다른없는 평범한 대표들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하고보니 정말 생각되는 바가 많습다.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일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이다. 진정한 삶의 터전이고 행복

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의 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싶은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직하는 인민,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간고해도 사회주의의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 결사의 의지를 지닌 이 나라 모든 공민들의 신념에서 하나같이 뚫고 나오는 진리와 의의의 맹세인것이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였던 신의주방직공장 방직공처녀의 심정은 또 어떠하였는가. 《어린시절 선거장으로 가는 부모의 얼굴에 어찌하여 그처럼 많은 웃음이 비쳐있었는지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진정한 삶의 품에 대한 헌없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자애롭게 주고 희망을 꽃피워준 어머니 조국이 오늘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선거표를 결코 가볍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슴에서 새처럼 높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입에서 흘러내리는 찬사의 찬료. 애국의 찬료를 비추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진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정권건설의 전인민회의의 길을 헤쳐 나가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 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배에 새기고 있다. 백두산혈새위인들의 이인위천의 사상과 명도의 고귀한 결정을 철두철미히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공화국정권, 항일의 불길속에서 력사적부

### 인민의 내 나라가 제일

이제는 내 나이다 어른이 훨씬 넘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찬료를 바친 나의 마음은 지금 청년남자들의 심장대로이다. 해방후 저주로는 남녘땅에서 소년동맹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나였다. 하루빨리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 참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가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대가 남녘땅을 해방했을 때 선함으로의 용군에도 입대하였다.

민중의 팔로 태어나 해방의 회열도 맛보지 못하고 갖은 수모를 받아온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나는 고령의 몸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젊은 삶을 빛내며 나가고 있다. 인민의 나라, 인민의 제도를 마련해주고 더욱 빛내어나가는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에게 젊은

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욱 빛내어 주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목숨까지 지켜갈 때 참된 삶이 담보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끝없는 기쁨과 회열이 넘쳐흐르는 선거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욕대가 정의 아버지로 모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주는 데 열성을 다할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 안약군 읍 102인민반 전영로병 김 래 울

### 10월의 대추전장에 떴떴하게

위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찌와 눈굽이 젖듯이 젖어든다. 이번 대의원선거 선거투표장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로동자들이 많다. 이것은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최상대의 믿음이 라고 생각한다. 모든 공민들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정치생활에 참가하여

가 배움의 권리,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아안으며 자라나 오일은 참다운 정치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와 같은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고는 긍지와 자부심을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우리 인민들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자기의 의사와 리의를 존중받는 내 나라의 현실, 이것은 돈과 권세가 모든것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우리 대의원 로동계급은 많은대상설비생애에서 현인 혁신을 일으켜 10월의 대추전장에 자랑찬 로적적성들을 안고 떴떴하게 서게 된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 작업반장 백 승 조

### 남다른 긍지

태어나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여 찬성의 찬료를 바쳤다. 그래서인지 조국을 위해 애지는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는 나에게도 당당한 공민의 권리를 안겨준 어머니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치게 안겨왔다. 자본주의사회라면 국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았을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내

가 배움의 권리,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아안으며 자라나 오일은 참다운 정치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와 같은 근로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선거되고는 긍지와 자부심을 통하여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우리 인민들의 귀중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자기의 의사와 리의를 존중받는 내 나라의 현실, 이것은 돈과 권세가 모든것을 좌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우리 대의원 로동계급은 많은대상설비생애에서 현인 혁신을 일으켜 10월의 대추전장에 자랑찬 로적적성들을 안고 떴떴하게 서게 된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발전설비조립직장 작업반장 백 승 조



—사동구역 장천남세전분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는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번에도 도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한 가수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나 큰 믿음이며 격정을 금할수 없다. 아마 돌아간선 부모가 살아 계셨다면 나의 심정과 같을것이다. 돌이켜보면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의 부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나의 부모도 해방전 사람이 아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조국의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하였기에 아버지는 반일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파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목숨까지 잃어왔다. 아버지는 선거전에 늘 나에게 조국이 있고 선군이 개인의 행복도 존엄

도 있다고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만을 받아안으면서도 나는 그때까지 조국의 귀중함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나서면서, 더구나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식료품공장의 생산을 책임진 일꾼으로 일하면서 나는 내가 안겨주는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하며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로고가 얼마나 가슴 뜨거웠던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위대한 원수님들과 똑같은 신념을 가진 수령님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날때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는가. 인민의 기쁨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들 때면 인민의 참된 총부리 될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는 우리들

이다. 지난 기간 우리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설비의 현대화와 생산성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온 나라가 다 아는 공장이다. 3중3대 혁명붉은기쁨을 수여받은 공장으로 되었다.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많은 풍우유를 생산하여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초, 고급중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있으며 시안의 주민세대들에게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 나날에 평범한 너성에 불과한 나도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나날이 커만 가는 당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을 때마다 나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도를 언제나 잊지 않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정으로 받드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곤 한다. 문천식료공장 지배인 정 병 옥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정권의 힘은 인민정권을 지지하는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입니다.》 7월 19일 아침 평양시 제 34호선거구 제 1호분구를 찾았을 때 우리의 가슴은 흥분으로 세차게 뛰었다.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단장된 선거장,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한 노래소리, 명철못차림을 하고 서로 서로 앞을 다투며 선거장으로 모여오는 선거자들...



본사기자 조경철

##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드림없는 이치

평양시 제 34호선거구 제 1호분구를 찾아가서

선거장은 환희로운 경축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고마운 우리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빛내어갈 참다운 애국의 열정이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 그대로 비쳐있었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우리 인민정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선거자들의 열의가 그대로 애국의 찬료로 표출되어 이어

우리를 찾아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귀중한 조국을 지켜 정찰병으로 용감히 싸운 나날을 되새기고나서 그는 말하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우리 인민정권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갈 마음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던 그의 손녀 권영심동무도 한마디 하였다. 《선거표를 결코 가볍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도 별로 없는 저에게도 선거표를 안겨준 고마운 우리 인민정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의 찬성투표하였습니까.》

불라는 애국의 열의를 안고 찬성의 찬료를 바친 기쁨과 긍지가 그의 얼굴에 차넘치고 있었다. 투표를 마친 전영로병 권종범동무는 온가득을 앞세우고

저희 부부는 인민들의 구강치료를 맡은 의사이고 달달한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이요, 둘째딸은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우리 제도를 떠나서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라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찬성의 찬료를 바쳤습니다. 이것을 어찌 그의 심정이라고만 하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써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의 제도를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영원한 신념의 맹세가 선거장에 굽어치고 있습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일하는 김봉일동무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져왔다. 《오늘의 선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선군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이 기세로 자랑찬 로적적성들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떴떴하게 서게 됩니다.》

## 창조적투쟁과 위훈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겠다

집중로화, 련속로화, 명중로화를 새차례 맞이하며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백두산에서 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인민대중지휘관들처럼 정치사업자전도, 대중의 정신적발동도 격진장판분에서 아전선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 통천군 장산리당에서 강진명동무는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고보니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더욱 굳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 나갈수 있다.** 나는 리인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과 락판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올해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한 투쟁으로 적극 불려일으켰다. 조건은 불리하고 난관도 많지만 권좌의 나날 아버지수령님만을 계속 믿고 따르던 장산리당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만 확고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오늘 우리 리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고나서 더욱 굳게 다지는 맹세이다.

우리의 당원들은 늘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업정체관철을 적극 불려일으키는 화산식적지사업업을 활발히 벌려나갔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문화화반, 계급교양점들을 잘 실천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이 탄부들의 애국열의를 어떻게 폭발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높은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드락에 두고 살도록 탄부들의 심장속에 충정의 불을 새차례 지켜주었다. 우리 일꾼들은 모든 탄부들이 석탄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드는 제일동지, 고마운 내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충신이 되도록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겠다. 끊임없는 헌지되도록 조국수호, 강성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록하신 보복에 실장의 박동을 맞추며 작전도 지휘도 막장에서 하는 야전형의 지휘형인들로 자신을 더욱 든든히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탄부들의 열의가 석탄생산에서 남김없이 폭발하도록 송풍기적역할을 더욱 잘해나갔다.

민중제일주의를 자기 사의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는 우리 당원이 될철수 없는 가슴 벅찬 현실이다. 지금 우리 탄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삼반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7월정산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일꾼들이 탄부들의 애국열의를 어떻게 폭발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높은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에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드락에 두고 살도록 탄부들의 심장속에 충정의 불을 새차례 지켜주었다. 우리 일꾼들은 모든 탄부들이 석탄산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드는 제일동지, 고마운 내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충신이 되도록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겠다. 끊임없는 헌지되도록 조국수호, 강성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록하신 보복에 실장의 박동을 맞추며 작전도 지휘도 막장에서 하는 야전형의 지휘형인들로 자신을 더욱 든든히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비상히 앙양된 탄부들의 열의가 석탄생산에서 남김없이 폭발하도록 송풍기적역할을 더욱 잘해나갔다.

동평양화력발전소 라빈직장 부수작업반 당세보서진 현희동무는 찬성의 찬료를 바치고 나옴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떠났던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온 대의원을 보자처럼 조국이 알고 인민이 떠났다는 애국자로 삶을 빛내일 결의가 더욱 굳어진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세보인 모든 당원들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애국충신들로 준비시킬 맹세가 배배대다. 당원들 모두가 전력충신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갈 한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기대정검과 보수정비에 깨어난 함성을 바쳐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시고 자신부터가 실천적투쟁을 보이자. 그리하여 우리 당세보를 당성책관회의 결사대, 최후대로, 일심단결의 생세를 만드는 성들로 만들겠다. 그 마음 안고 지금 당장 달려나갈 작업반들과 함께 기대정검과 보수정검의 동무를 더욱 높여 올릴것입니다. 현충군 강계시내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표를 받드는데는 순간 정말 생각이 많았다고 했는데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안겨주는 공민적

공지와 자각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는가. 대대로 내려오던 남녘너비의 봉건적인 질곡에서 우리 너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한복속을 바리케를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인민대중중심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올랐다. 그럴수록 당의 명도 밑에 공화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떨치는 길에서 조선선성의 높은 혁명정도와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할 결심

과 각오가 더욱 굳어졌다. 지난 기간 시장위원회 지도자 우리들은 너맹돌격대활동을 힘있게 벌려왔다. 야학들의 너맹원들은 3년전부터 45만장의 보도블록을 생산하여 시안의 길들음들을 깔아주었으며 석현동의 너맹원들은 석현공원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여러해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일일이 출근길에 온 근로자들에 대한 환영사업을 진행하여 온 시가 전후적기상과 광안도의 두

리 너맹원들이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도육아원, 애육원건설에서도 너맹원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현장에 천막을 치고 불과 두담 낫질 한 시간에 53만장의 보도블록을 생산하여 사람들을 놀래웠고 기초공작, 벽체축조, 콘크리트타일 등 제기되는 건설과제들도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며 해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더욱더 앙양된 너맹원들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는 길에서 선군조선선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겠다. 본사기자

공지와 자각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는가. 대대로 내려오던 남녘너비의 봉건적인 질곡에서 우리 너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혁명의 한복속을 바리케를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인민대중중심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어올랐다. 그럴수록 당의 명도 밑에 공화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떨치는 길에서 조선선성의 높은 혁명정도와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할 결심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철도성려면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참된 삶의 자욱 새기리

## 오늘도 증송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쁨을 높이 들고 대오의 앞장서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일군들속에는 신의주기관차대 대장 홍성일동무도 있다.

그는 대고조시대 혁명의 지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기관차수리정비와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해마다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난해에는 수리증대원들을 발동하여 내부에비를 적극 탐구하면서 수송계획을 1.260배로 늘리는 기관차수리정비팀을 이끌며 수송과를 이룩하였다.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운 기관차수리정비팀을 보면서 사람들은 흥성일동무의 완강한 실천력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선진시대 일군의 일꾼새가 다르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주력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의주기관차대 대장 홍성일동무와 수송전사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신의주기관차대의 일군들과 기관사들의 기세는 총천연하다.

그것은 자체의 기관차수리정비팀을 물론이거니와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해마다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승산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새해 첫날부터 신들메를 바짝 조이고 기관차수리정비팀의 약을 일으키며 두줄기 궤도위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는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삼바 통쾌하자! 바로 이것이 마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중요물동수송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고 10월의 대추경장으로 들어서는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심장에서 맥박치고있는 혁명적신념이다.

하기에 지난 한해동안에 남달리 같은 업무도 배우는 등차기관차수리정비팀을 내세우고 그 수리정비팀을 받아들이고 공사를 맡은 수리증대원전사들

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후를 벌리면서 기관차수리정비팀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그러하여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기관차수리정비팀을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수리정비팀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이렇게 기관차수리정비팀을 건설해놓으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종전에는 기관차수리정비팀을 내세우고 달려왔다. 산중에서 합숙진료와 일교수리를 건설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세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물동량을 전부 동원해서 나날이 운반해와야 했다. 일꾼들은 앞장에서 동점을 짓고 달려나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축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서고 일교수리수가 늘어나 옥실거리는 자랑스러운 풍경이 펼쳐졌다.

또한 양어장도 건설하고 태양열온실과 버섯생산지도 애써 꾸려놓아 종업원들에게 주점한 식량이 차배지게 하고있다.

오늘도 홍성일동무와 기관차대수송전사들은 자랑찬 로력적신념을 안고 10월의 대추경장으로 들어서는 설비와 공정을 더 꾸려놓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자력갱생이로 사회주의신경을

은 나라가 10월의 대추경장을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속에 자기가 사는 고향과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나가는 자력갱생인민들의 불같은 열의와 애국적투쟁으로 하여 운봉지구가 사회주의신경으로 변모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색에 맞게 꾸려야 합니다.」

조국의 복원 일군들 기술에 자리잡고있는 농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수리정비팀을 찾아오시어 운봉발전소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발전소건설과 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애써 꾸려놓은 배후지구를 맡아주시고 일꾼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선으로 전환시켜주시는 높은 자각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운봉지구는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아름다운 사회주의신경으로 변모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신념을 지니고 있는 인민들의 높은 자각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운봉지구는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아름다운 사회주의신경으로 변모되고 있다.

## 자성군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갔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기초조직을 비롯하여 공사시작부터 단위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한편 불리한 공사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공법들과 운반수단을 적극 받아들이고 로력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공사를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또한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전후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두고 시공지도는 책임적으로 하면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비사상 높여나갔다.

행복은 그 누가 저절로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부당찬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완강한 투쟁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는 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단 몇달사이에 수송량의 문화추위를 절미하게 일떠서 두배산출 자성군의 운봉지구가 증진의 모습을 온전적으로 띠어내리고 인민의 행복이 더욱 꽃피는 사회주의신경으로 전면되게 되었다.

운봉지구가 또 하나의 사회주의신경으로 전면되도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회주의의 눈높이에서 높은 자각을 높이 받들고 실천해나가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성민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이른새벽마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에 날면서 들이서는 로인들이 있다.

그들은 고향집마당과 그 주변의 편지사업을 정성껏 진행한 후가지고 있는 물품마다에 생물을 장식해 달기 시작한다.

그들이 바로 만경대생물을 정히 안고 시인의 중요단위들과 건설장들을 매일과 같이 찾은 하는 백현비, 번우녀, 윤우녀, 현현원, 강애우, 윤신우, 백명주, 안갑순, 리선화로인들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평양의 생물학자녀들이라고 칭찬해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도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생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소이다.」

생물학자녀들이 만경대생물과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1월 어느날이었다.

만수대 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다는 소식에 집한 백현비로인의 마음은 끓이는 흥분으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파사로 올 품이 없었던 나라였던 그 새월 빈둥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반이안은 참다운 삶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알고싶은 그였기에 지난 40여년간 만경대고향집 주변편지사업에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해온 백현비로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걷는 절세인민에게 바치는 충성이 부족했단말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만수대창작사로 만경대생물이 든 물품을 안고 들이서는 할머니가 있었다. 백현비로인이었다.

만수대창작사의 창작자들에게 만경대의 생물을 마시며 절제인민들의 태양의 모습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성하여 모서꽃들을 부락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만수대창작사를 찾은 백현비로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인의 여러곳에서 사는 로인들도 따라나섰다.

날이 갈수록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비롯하여 만경대생물을 안고 그들이 매일과 같이 찾은 곳은 늘어만 갔다.

얼마부처 그들은 우리 당의 편지사업, 인쇄조선정책이 융성되고 주체적건축예술의 상성으로 되는 과학기술전진건설장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나 그들이 날라야 할 생물량도 많아지게 되었다.

이른새벽부터 물품을 들고 시인의 여러곳을 찾아 만경대생물을 날라오고나면 날이 어두워져야 집에 들이서는것이 예사로운 일로 되었다.

때로는 년로한 몸이 지쳐 앓아누는 때도 있었지만 로인들은 세대를 뛰어넘어 또다시 물품을 들고 만경대고향집으로 향한다.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식들이 오늘은 좀 쉬라고 말할 때마다 생물학자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물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마흔까지 이걸에서 몰라서지 않소이다.」

오늘도 그들은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고결한 정성과 의의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승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는 일군들속에는 삼천동리와 광산 일군들도 있다.

생산활성화와 생산론 강요, 생활문화화합을 위한 삼고 많은 일군을 안고 뛰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것이였다.

몇해전 어느날 지배인 전시종동무는 길가에 표창유가를 마치고 부대 떠나가는 한 녀성군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산의 오면 로동자인 김봉호동무의 딸이였다. 군사부문을 잘하라며 작별인사를 나누던 전시종동무는 그의 안색이 밝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넌에 없는 가뭄피해로 어느 집이라 할것없이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그때 허리까지 다쳐 집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두고 떠나가는 딸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가버울수 있었겠나.

격정이 어린눈물로 산기슭의 고향집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딸이 떠나가는 녀성군인의 모습이 전시종동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총잡은 병사들이, 오직 원수의 심장만을 겨냥하여 할 병사들이고 그를 돌보지않고 순진이라도 되야 할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광산 일군들속에서 종업원의 대다수를 이루는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기 위한 선동이 일었다.

일군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가운 염소들이 자제축산기의 존재가 되었으며 앞장에서 서서 일군 부업장들에 알찬 열매들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후방가족들의 먹는 문제, 맴잡문제가 늘 사업수첩에 주요 항목으로 올랐으며 일군들은 그 해결을 위해 신발바닥이 닳도록 뛰었다.

「군대에 간저의 아들도 세 포동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무거운 돌판을 메고 운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날계획도 넘쳐 수행하였다.

이러한 생산성과는 세로지구 축산기진전성과도 이어졌다.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주지 않았던 광산이 오늘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기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는 광산으로 필수있었던 전시종, 김정철동무들을 비롯한 광산의 일군들이 후방가족을 돌보는것은 곧 원군이 며 당의 선군명도를 만드는 길이며 광산을 가지고 광산의 기본력량인 인민군대후방가족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인대였다.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원수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뽀뽀하면서 마음에서 뉘는 때마다 광산 일군들은 마음속결의를 가다듬는다.

경애하는 원수님, 후방의 가족들은 우리가 맡았소이다.

본사기자 송철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신념을 지니고 있는 인민들의 높은 자각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운봉지구는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아름다운 사회주의신경으로 변모되고 있다.



위문의 자욱 새기려는 열의의 헌신자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은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총련상공회일군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9일은 총련 제일본조선상공연합회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상공회일군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에 후손만대 부락할 주제

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주시었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필사를 우리로 승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성물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그들은 총장보신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저적도와 의공헌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신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기로 하였다.

그들은 총장보신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저적도와 의공헌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신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기로 하였다.

## 철령아래 청춘과원에 울리는 사랑의 노래

### 고산파수능장병원을 찾아서

「철령아래 사파바다」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고산파수능장을 돌아보던 우리의 눈앞에 2층으로 된 멋진 건물들이 나타났다.

청춘과원과 어울려 더욱 이채롭게 안겨오는 그 건물에서 누군을 매지 못하는 우리에게 눈장중업원들과 주민들은 지난해 새로 일떠선 고산파수능장병원이라고 하면서 저저마다 담당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는 의료일군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고풍하게 갖추어진 훌륭한 의료부서사이에 대한 사랑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그 목소리들을 먼저 취재수첩에 적은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병원에 들어갔다.

이제 한 번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기관들에서 담당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도 잘하며 여간간 절명병을 미끼라고 이 담당주민들의 우열성공과 생활력을 넘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소이다.」

병원주변에서 약나무와 약초밭을 가꾸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들중에는 현장 임성재동무도 있었다. 우리는 그의 인쇄판에 병원이름이 들어있었다. 첫눈에 모든지 환자들의 원의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우려했다는것이 알렸다.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알뜰관들과 치료순서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만든 위생상식카드들, 부도에 게시한 위생선진관마데서 농장종업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비쳐가는 의료일군들의 열정의 세계를 충분히 엿볼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에 갖추어진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은 우리가 어느 중앙병원에 와있는듯 한 느낌이 들게 할정도였다.

해방전에는 단 한개의 병원도 없었다는 여기 고산파에 의사람당구역제의 실시아래는 곳마다에 수많은 의료봉사자들이 생겨나고 오늘도 전진의 새 물결과 더불어 중앙병원 못지 않은 현대적인 병원이 일떠섰으니 어찌 이곳 사람들의 격정이 크지 않겠나.

연방 감관을 금지 못하는 우리에게 원장은 병원에서 리용되고있는 거의 모든 의료설비들이 우리의것이여 치료과도 높다 그 공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몇개의 의료설비밖에 없던 병원은 국산화된 종합수술대, 복부초음파단기, 심전계, 위내시경, 구강종합치료기, 이비인후과치료기, 해산대와 보육기 등 50여종에 150여점의 의료기구와 설비를 갖춘 종합적인 치료에반기지로 전면되였다.

원장의 이야기는 병원건설의 첫발을 박던 날 보건성 책임일군의 방에서 진행되었다는 협의

##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켜

2. 8비료농업기업소 가정소다직장 조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세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육사업을 생활화하고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조급당일군들은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틈틈이를 리용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알 할 권리,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권리를 보장받고있는데 대하여 해설해주고있다.

얼마전 작업의 틈틈이에 조급당비서는 이적 생활은 유혹하지 못해도 사람들과 함께 동지에게 호프고 서로 돕고 이기는 미풍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도덕적초기초가 더욱 굳건해지고있다는것을 최근 당부에 소개된 미풍자료들을 실행해가며 실감있게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는 나라가 회복된 대가정을 이루고 전체 인민이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는것을 실생활화

결부시켜 감동깊게 이야기하였다.

조급당위원회는 우리 선거제도의 우월성을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대비속에서 깊이있게 해설전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쏟았다.

직장안의 전체 종업원들은 높은 생산실적으로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일 한마음안고 10월의 대추경장을 향한 총공격전에 애국의 구슬땀을 남김없이 바치고있다.

로동통신원 장명일

## 외국 손님들 평양과 지방의 선거장들을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평양과 지방의 선거장들을 19일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 손님들이 참관하였다.

평양시 제16호선거구 제129호분구, 제91호선거구 제110호분구, 청진시 제208호선거구 제17호분구를 비롯한 여러 선거장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의 혁명투쟁을 반성같이 다져나갈 열의에 넘쳐 찬성의 환호, 애국의 노래를 바치는 선거자들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청진주에 로씨야방방총영사관 성원 울라지슬

라프 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 일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에 이어 또다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을 참관하니 기쁘다.

7월 1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명절과 같은 뜻깊은 날이다.

이날은 또한 로씨야의 푸엔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15돐이 되는 날이다.

그는 선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합창곡도 수많은 애송곡도 함께 노래를 불러 절찬을 받았다.

로씨야영화대표단 단장 유리 미유친은 조선인민의 선거

준중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는 로조선의 해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조선을 방문한이다.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이 계속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주조 세계시향계 대표부 성원 카우자쿠부부인 아흐메드는 선거장을 돌아본 다음 자기의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였다.

선거장에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어려졌다.

총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를 비롯한 선거자들의 얼굴마다에 자기들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진에 대한 긍지, 자부심이 어려졌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실에 들려보아도 인민을 위한 당의 해방같은 사랑이 숨배어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치료해방사업에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갈 의료일군들의 열의 또한 높았다.

이런 단위에 이적 성과가 으려. 늘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에 본인들도 모르지않고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해주는가 하면 종전같으면 상급병원으로 파송하곤 하던 환자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때에 치료하여 소생시키는 놀라운 기적도 많이 보고하였다.

고산파에 일떠선 병원을 돌아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평범한 종업원들과 주민들이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에 입상함으로써 건강보호를 받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만 뿐 아니라 자랑찬 현실이요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이 아니겠는가.

조국의 운명 지키러 철령을 넘어 밟는 노래와 함께 비껴오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교, 바로 그 철령아래 펼쳐진 청춘과원에 울리는 또 하나의 인민 사랑의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싶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찾아주시고 지켜주시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어주시는 조국은 능사처럼 사랑받고, 조국을 위해, 사회주의로제도를 빛내이기 위해 더 많은 밤을 바치고.

본사기자 김옥별

# 동족대결과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처참한 종말뿐이다

##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수많은 자살수폭 비탄두루마기를 읽는다는 말이 있다. 북남대화분쟁과 관련하여 남조선피괴들이 늘어내고있는 꼴이 꼭 그 격이다. 최근 피괴당국들 비롯 한 보수정권자들은 일관 터지면 그 무슨 《희생관용 대화》나, 《모든 대화가 능성》이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늘어놓는 한편 우리더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피괴를 물고있다. 북남관계파괴자들의 파멸적인 꾀안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북남관계파괴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주는 피괴들의 악습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다. 하지만 피괴당이 너무도 변한 사실을 놓고 시지미를 때는데 대해서서는 실로 경악을 금할수 없다. 박근혜당이야말로 한시라도 동족을 결코치지 않던 몸살을 앓는 추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이 분명한다.

입은 베풀어주며 주라는 바로 불라고 하였다. 국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당쳐놓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과연 피괴들에게 《대화》니 뭐니 하고 떠들 한조각의 세번이나 자국이 있는가.

오늘 북남관계는 정치, 군사적대결의 국한점에 이르고 조선반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처하고있다. 이것은 다름아니라 국악한 반공민대결집단인 현 피괴집단체에 의해 빚어졌다. 피괴당이 돌아오리 《대화》 타령을 요란히 늘어놓아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미쳐날뛴 저들의 추악한 꼴을 감출수 없다.

현 피괴집단체는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북남대화의 앞길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건 국악한 대결집단이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과 민

족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필생의 의무이다. 하기에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의 대결, 대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 통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중단된 고위급회담도 재개할수 있고 부분회담도 진행할수 있다는 대변한 립장도 보여주었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발상소동을 중지하도록 하기 위한 과격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하지만 피괴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어떻게 대답해나섰는가. 피괴당국은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는것이 《대화의 전제》라고 기업을 토하면서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피괴당국의 망상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도발적인 북침전쟁을 일으키고 반공화국베라살로, 살발한 《중공》소동이 벌어졌다.

사실상 피괴당국은 우리와 대화하려는 의욕만 남지 않았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모략에 앞장섰으며 메달리 미국과의 연합체제가 있는 한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는, 《한반도정세는 동양의 주주들》이라는, 하는 오진적나발말을 제쳐내며 지난 3월초부터 북침을 가한대대규모적인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해나갔다. 동족의 대화노력에 등을 돌리고 외세와 공모결탁하며 반공화국도발소동에 앞장섰으며 메달리 피괴당국의 반역적행위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분위기는 끝내 파괴되고 북남관계는 국도의 파국에 처하였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까닭에 남조선당국의 부분적인 대결책동에 대해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하였으며 냉정할 기

회도 주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를 다하였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5돐을 계기로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여 엄중한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향적방향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했었고 그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박근혜당의 대결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외세와의 공조로 《모든 고려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고 고이대면서 북남관계파국을 더욱 심화시켰다. 얼마전 피괴들이 서울에 반공화국모략기구인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독자적인 《대북공정제》를 실시한데 이어 조선통화에서는 대우적인 종합전후련을 벌이고 조선시에서는 미제침략군과 함께 해인양곡군수지원련을 감행한것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반공화국도발소동의 일부본질뿐이다.

피괴당이 북남대화는 안중에도 없이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에 열마나 한창하고있으면 평양생물기생물연구원에 대해 그 무슨 《한계연생기술기》니 뭐니 하며 악의에 차서 헐뜯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자나깨나 동족을 해칠 야망에 사로잡힌 대결미치광이들의 《대화》 타령에 과연 누가 속아넘어갔겠는가.

죽어도 낯짝이 없어 숨을 구멍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피괴당은 시꺼먼 속통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 타령을 작작 늘어놓아야 한다.

피괴당국자들은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무반발한 반공화국도발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긴장상태를 국도로 침투해시킨 저들의 죄악에 대해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범죄적인 대결책동에 당장 정지처분을 하라. 피괴들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죽어가는 피괴당국자들은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무반발한 반공화국도발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긴장상태를 국도로 침투해시킨 저들의 죄악에 대해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범죄적인 대결책동에 당장 정지처분을 하라. 피괴들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죽어도 낯짝이 없어 숨을 구멍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피괴당은 시꺼먼 속통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 타령을 작작 늘어놓아야 한다.

피괴당국자들은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무반발한 반공화국도발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긴장상태를 국도로 침투해시킨 저들의 죄악에 대해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범죄적인 대결책동에 당장 정지처분을 하라. 피괴들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 공화국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는것은 반인륜적인 랍지행위

재미 동포 언론이 강조

비인간적대결에 대해 지춥는 분노를 머뜨겠다고 밝혔다.

북주민들을 송환하지 않는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뿐 아니라 인도주의적문제에서도 전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우기 북주민들을 상대로 《귀순》공작을 벌인것자체가 틀리나 도리에도 어긋나는 비인간적대결이라고 규탄하였다.

인도주의적문제까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며 송환하지 않는것은 랍지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실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서로 공모하여 대조선적대결책동에 추수하면서 수많은 북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유인, 랍지하여

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 라고 밝혔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강제역류한 북주민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정보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엄중한 자금을 투입하여 불법적으로 북주민들을 유인, 랍지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해왔음을 스스로 명증하는것으로 필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기생세력의 범죄행위에 추종하면서 반공화국적대결책의 공모자로 높아졌듯이 바로 미국식민지노예 남조선당국이 라고 단죄하였다.

같은 남조선당국이 표류된 북주민들 가운데 돌려보내지 않는 3명을 즉시 송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보세력말살을 노린 피괴당의 탄압소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선》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6일 서울의 종로구에서 집회를 가지고 정보세력말살을 노린 피괴당의 무차별적인 탄압소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피괴당자들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100여명의 과잉경찰을 내몰아 자수연립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인대의 사무실과 인쇄소 등 6곳을 강제수색하고 단체력 심성원들에게 체포명령을 발부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중선전화교의 메메당에도 탄압의 마수를 뻗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재미동포 학자 김상현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전 통합전보당 성원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들이쳤으며 미군의 세권적행동에 항의하여 투쟁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면행했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할수 없는것은 심하게 앓고있는 변호사 김승욱의 집을 강제수색한것이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당국이 조선인민독립을 노린 피괴당의 탄압소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자수연립과 민주, 민생을 해치는 단체와 인사들을 마구 탄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의 가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죄 투쟁하여 반드시 박근혜 《정권》을 최진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청년실업문제의 본질을 외곡하는 피괴당국을 비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청년실업 원인으로 잘못 짚은 박근혜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남조선에서 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청년고용 종합대책》이라는것을 발표해 발표할것이라고 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업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것이 청년실업자들을 두번 죽이는것이 아닐지 의심 우려가 된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지난 6월 29일 상공회의소가 대학졸업생이 너무 많은것이 실업의 원인이 되는 황당한 분석과 해피한 해결방도라는것을 내놓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사설은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은 매우 피상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실업대책내용은 《경제를 살려준다.》, 《경제민중화를 이룩한다.》, 《감언리설로 민중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집권자와 여당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전혀 기대할것 없는 《정부》의 야망을 비판하고서는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북남 대화는 남조선피괴당국의 추악한 정치통략물이 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북남대화 열리고 북남관계가 진전되자면 무엇보다도 마주앉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북남관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추종한 박근혜당의 악랄한 대결정책으로 하여 도저히 마주앉을수 없고 한치도 전진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

박근혜당이 《대화》 타령을 늘어놓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피괴당의 조종과 부추김에 인간쓰레기들의 베라살소동이 계속되고 피괴군 부장제들은 그 누구 《도발》을 운운하며 미국의 《련합군수지원련》이라는 뭐니 하는 따위의 북침전쟁발상소동을 그칠새 없이 벌이고있다.

피괴들이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무반발한 반공화국도발로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망쳐놓고 긴장상태를 국도로 침투해시킨 저들의 죄악에 대해 민족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며 범죄적인 대결책동에 당장 정지처분을 하라. 피괴들은 그 어떤 죄악이라도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지역의 평화와 엄중히 위협하는 피괴당이 그 무슨 《안보대책》을 벌여놓는 그자체가 역겹거리고 그런 나쁜 반공화국대결의판에 그 누구를 《초청》한다고 떠들어대고있으니 실로 해피한 투쟁이 아닐수 없다.

제반 사안은 북남대화를 추대한 정치적통략물로 리용하려는 피괴당의 음흉한 기도야말로 도를 넘는 파멸적인짓이라고 그대로 보여주었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들을 다 차버리고 동족을 헐뜯는 악랄한 대결책동에 앞장섰으며 북남대화를 파탄시킨 주범들이 그 무슨 《대화》타령으로 시꺼먼 속통을 가리워놓고 돌아오리 《대화》해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다.

피괴당이 우리와 마주앉을 초보적인 자격을 갖추자면 이제라도 대결책동을 버리고 이미 북과 남이 합의한 북남공동선언을 인정하고 리행하겠다는 립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북남대화는 남조선피괴당의 추악한 정치통략물이 될수 없다.

본사기자

## 시민단체성원들 부당한 탄압에 항의

남조선의 시민단체성원들이 피괴당국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안당국이 인터넷을 통해 북반통신을 공유했다는 구실을 붙여 열다섯 단체성원 박정숙을 구속했다고 폭로하였다. 《공민운동의 행동대장》 황교익이 《국무총리》로 올라가지마자 민중의 버림을 받은 집권자를 살리기 위해 광범위한 폭압정국을 조성하고있다 하므로 4, 16대선에 대한 탄압, 박정숙에 대한 구속은 본격적인 공안통치의 예고판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법에 경여 감옥에 가두는 현 《정부》는 정승만도 못한 무리라고 단죄하였다.

민중분열의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을 알고 북과 대화를 나누는것으로부터 출발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를 《해》로 붙여대며 파도탄임을 일삼는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대역죄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보안법》으로 인권의 리리를 가로막고있는 역대 최악의 반공법, 인권탄압 《정부》라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것을 아니 할게 여긴 피괴당국은 정보원에게 악성코드를 심어놓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수출업체에 관련 기술을 의뢰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현 피괴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은 이후부터 로발된 정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국악한 인권유린행위들이 정보원의 불법사찰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시간이 흐름수록 피괴정보원이 집권자의 독재통치를 위반했다는 도구가 되어 불법해킹을 옴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해왔다는것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파오 《정권》에 대한 분노사이가 솟구치고있다.

인민들의 높아가는 항거기를 억누르며 반역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을 불법사찰에 놓이게 되어 남침은 피괴보수세력의 망명을 피하는 군부파오 독재시기를 방불케 한다.

피괴정보원의 불법해킹사건은 남조선이 얼마나 슬막히는 독재사회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처참한 폐허화되어 가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인권을 무장히 유린한 피괴들이 실로할것은 피괴의 전사이며 앓는 자리는 피괴사이다.

본사기자 장운남

공화국을 겨냥한 위법적인 전쟁발상소동이 매일 같이 벌어지고있고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피괴군정파들이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조선시해에서 해인양곡군수지원련을 벌여놓고 북침전쟁을 고취한것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유사시 조선반도에 중장거리 미제침략군의 병력과 장비들을 수송, 전개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여 강행된 이 훈련은 그 내용과 진행양상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발상소동이었다. 연습에는 남조선피괴군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제침략군부대를 포함한 1 400여명의 병력과 7 00여척의 함정이 참가하였다.

피괴들은 조선시해의 불리한 작전환경을 극복하고 유사시 제기할수 있는 임의의 정황에도 대처할 기도에 있어 전진연습을 벌여놓았다. 호전파들은 연습당시 항만을 정상적으로 리용할수 없는 정황을 조성하고 길이가 5 60m에 달하는 부교까지 설치하고 인공적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에 미쳐 날뛰었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중장거리 병력을 북침공격전에 신속히 투입할 용에 따른것으로서 피괴호전파들이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서해로부터의 북침상륙작전을 기도하면서 어리석은 야망

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남조선피괴들은 막대한 자금을 댄것을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최단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는데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피괴군부호전파들은 우리 공화국을 대한 감시 목적으로 하는 새형의 정찰기 2대를 201 7년까지 도입한다는데 대해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호전파들은 《새일발사차》와 《통신감청》이니, 《실시간과악》이니 하며 정찰장비를 부리었다.

이제 피괴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찰행위에 리용하게 될 미국의 고고도인정찰기 《글로블 호크》 4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이것으로 도자라 또 도자라 2대의 정찰기를 끌어들이기로 한것은 그 누구의 《력,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공격행위를 증강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피괴당국의 호전적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입증해주고있다.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세로 몰아가는 피괴군부호전파들의 이러한 도발행위가 긴장완화와 평화를 마라고있는 것인 조선시해의 요구에 배치되는 반인륜적대결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전제 조 선민족이 한결같이 바라고있는 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목소리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도발적인 북침전쟁정세와 무력증강소동은 계속 팔방하는 피괴호전파들의 제속은 그들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이

## 인권유린자들을 폭로하는 불법해킹사건

이 사실이 폭로되자 빠질 길 없이 해킹 프로그램은 저들의 해외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음은 없었다. 사내에 피괴정보원이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남조선내의 임의의 대상들을 불법적으로 감시, 사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였다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

피괴정보원의 이 파도적대결책동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야당들은 피괴정보원에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여부와 그 사용정형에 대해 자세히 밝히것을 요구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원건국개입을 구명하고 그 이후 해마다 유죄부수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그 기업에 지원하였다는 자료가 올라와있다. 피괴정보원체제들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손전화기 등에 사용자가 모르게 은밀하게 침투하여 정보를 빼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지어 사용자의 현재위치 감시자에게 전달할뿐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내용을 삭제할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컴퓨터와 손전화기 등에 리용하는 대상이라면 그 누구도 피괴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에서 벗어날수 없고 비밀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사실이 폭로되자 빠질 길 없이 해킹 프로그램은 저들의 해외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데 대해 인정하지 않음은 없었다. 사내에 피괴정보원이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남조선내의 임의의 대상들을 불법적으로 감시, 사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하였다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

피괴정보원의 이 파도적대결책동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야당들은 피괴정보원에 해킹 프로그램의 구입여부와 그 사용정형에 대해 자세히 밝히것을 요구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원건국개입을 구명하고 그 이후 해마다 유죄부수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그 기업에 지원하였다는 자료가 올라와있다. 피괴정보원체제들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손전화기 등에 사용자가 모르게 은밀하게 침투하여 정보를 빼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지어 사용자의 현재위치 감시자에게 전달할뿐 아니라 원격조종으로 내용을 삭제할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컴퓨터와 손전화기 등에 리용하는 대상이라면 그 누구도 피괴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에서 벗어날수 없고 비밀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각계 단체들은 피괴정보원의 망명을 《문학한 여지없는 인권침해》, 《유감 못할 인권유린》 등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민심을 잃은 현 《정권》이 해킹프로그램을 《민중의 목을 조이는 용기》로 써먹었다고 단죄규탄하고있다.

중지에 몰린 피괴당국은 정보원이 그동안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컴퓨터나 손전화기를 모두 남조선이 아닌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리용하였다고 단죄하였다.

국악한 파도풍으로 악명떨치는 피괴국부호세력 황교익은 피괴정보원에 《북에서 온 첩자가 있다.》고 고이대면서 《첩자성명을 위한 감청은 문제시될것》이라고 회피하였다.

피괴정보원체제들이 《안보위협에 따른 대응》이니, 《연구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반인륜적인 불법사찰의 용을 가리우려고 펴고있다.

사건발생이후 한동안 적소리를 못하던 《새누리당》은 피괴정보원장이 해킹프로그램구입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태가 험악하게 번지고있어 야당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부랴부랴 정보원감사기에 나서고있다. 《새누리당》은 해킹프로그램이 《연구개발용》이라는 정보원회의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불법사찰의 용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이것을 아니 할게 여긴 피괴당국은 정보원에게 악성코드를 심어놓기 위해 해킹프로그램수출업체에 관련 기술을 의뢰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현 피괴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은 이후부터 로발된 정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국악한 인권유린행위들이 정보원의 불법사찰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시간이 흐름수록 피괴정보원이 집권자의 독재통치를 위반했다는 도구가 되어 불법해킹을 옴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장히 유린해왔다는것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파오 《정권》에 대한 분노사이가 솟구치고있다.

인민들의 높아가는 항거기를 억누르며 반역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을 불법사찰에 놓이게 되어 남침은 피괴보수세력의 망명을 피하는 군부파오 독재시기를 방불케 한다.

피괴정보원의 불법해킹사건은 남조선이 얼마나 슬막히는 독재사회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처참한 폐허화되어 가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인권을 무장히 유린한 피괴들이 실로할것은 피괴의 전사이며 앓는 자리는 피괴사이다.

본사기자 장운남